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경제]

- Bloomberg:미 제조활동, 3년만에 가장 많이 위축
- WSJ: 경제 보고서가 일자리 상승을 과대평가 할 수 있어
- WSJ: 연준에 좋은 소식: 고객들은 낮은 인플레이를 예상한다

#### [미국 금융]

- Bloomberg: 투자자들은 'Ai와 일자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 [글로벌 경제]

- Reuters: 6월 글로벌 제조 생산량 부진... 수요 약세 탓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TheEconomist: 재택 근무의 환상이 사라지고 있다
- Bloomberg:테슬라, BYD 기록적인 판매... 전기차 수요 급등 덕분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 TheEconomist: 기업들이 AI를 널리 활용하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

#### [미국 경제]

### **Bloomberg: US Manufacturing Activity Shrinks by Most in Three Years** 미 제조활동, 3년만에 가장 많이 위축

- 6월 미국 제조 활동이 3년만에 가장 약하게 위축되었다. 또한 8개월째 위축되어 생산, 고용 및 투입 가격이 후퇴하고 있다.
- 오늘 월요일 공급관리협회(ISM)의 제조업 지수는 5월46.9에서 2020년 5월 이후 가장 약한 6월 46으로 떨어졌다. 2020년 5월 이후 가장 약한 수치다. 활동 위축을 나타내는 50 이하의 현재 수치는 2008-2009년 이후 가장 긴 기간이다.
- 3년 만에 가장 낮은 제조업 지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약하다는 점이다. 신규 주문지수가 10개월 연속 줄고, 주문 자고가 줄어든 것도 제조업 고용 지표의 하락을 말해주고 있다.

Bloomberg 기사

### **WSJ: Labor Market Headfake? Key Report Could Be Overestimating Job Growth**

#### 경제 보고서가 일자리 상승을 과대평가 할 수 있어

- 언뜻 보기에는 경제가 든든해 보인다. 1분기 GDP가 연율로 2% 상승했다. 고용주들은 올해 1백60만명의 고용을 현재까지 느렸는데 이는 팬데믹 전의 2019년 평균 증가율의 두배에 달하는 연율 2.5%다.

-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고용 시장 실제 상황은 이 수치보다 약하고 경제가 불황에 가까울 수 있다고 말한다.
- 그 이유는 일자리 데이터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일자리 데이터가 경제가 훨씬 약한 상황인점을 보여주는 다른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5월 실업률은 0.3%포인트 상승한 3.7%로, 2020년 팬데믹 경기 침체를 제외하면 201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한 달치입니다.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더우기 기업 고용 설문조사에서는 고용 지표가 악화되고 근로 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자리 보고서가 뒤쳐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이다.

## WSJ 기사

## WSJ: Good News for the Fed: Shoppers See Lower Inflation on the Horizon

### 연준에 좋은 소식: 고객들은 낮은 인플레이션을 예상한다

- 요지: 미국인들은 휘발류, 교육, 식료품의 인플레이션이 팬데믹 이전 수준에 가까워진 수준으로 보고 있다.
- 최근 관련 설문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향후 수개월 동안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몇년 동안은 팬데믹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즉, 뉴욕 연방은행의 5월 설문조사 응답자 평균값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앞으로 1년 후 인플레이션이 4.1%로 2년 만에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하며 최근 최고치인 6.8%에서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 이에 따라 연준 관리들이 믿는 바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인플레이션이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것. 바꾸어 말해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더이상 올릴 필요가 없다는 의미 일수 있다는 것이다.

## Bloomberg 기사

## [미국 금융]

### Bloomberg: Will AI Take My Job? What Investors Are Discussing at Summer Parties

#### 투자자들은 'AI와 일자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올 여름 독립 기념일 연휴에 미국인들이나 투자자들이 가족 등과 모일 경우 AI와 일자리를 화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관련 인공지능으로 인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혼란스러움과 경기 침체의 리스트 많은 사람들이 올해 더 많은 저축을 계획하고 있다.
- 예를 들어 금융업계의 감원 소식은 개인 투자자보다 전문 투자자가 저축을 늘린다고 답한 비율이 더 높은 이유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전문 투자자의 약 54%는 2022년보다 올해 저축을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금융업에 종사하지 않는 응답자는 43%에 머물렀다.
-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투자자의 50%는 다가올 경기 침체에 대비해 일상적인 지출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 Bloomberg 기사

## [글로벌 경제]

**Reuters: Global factory output slumps as weak demand weighs**  
**6월 글로벌 제조 생산량 부진... 수요 약세 탓**

- 오늘 월요일 발표된 비즈니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중국과 유럽의 수요 부진 때문에 수출업체들의 전망이 어두어지면서 6월 글로벌 제조 활동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시아의 경우 중국에서 제조 활동이 소폭 확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한국에서는 아시아 경제 회복이 모멘텀을 유지하기 힘겨운 상황에서 두 나라 제조활동이 위축되었다.
- 유럽의 경우, 유럽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정책 긴축으로 재정이 힘들어지면서 유로 지역 전반의 제조업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위축되었다. 영국에서는 낙관론이 사라지면서 감소 속도가 빨라졌다.
- S&P Global의 6월 유럽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월의 44.8에서 43.4로 하락해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성장과 위축을 구분하는 50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 한국의 PMI는 47.8로 하락했다.

## Bloomberg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TheEconomist: The working-from-home illusion fades**  
**재택 근무의 환상이 사라지고 있다**

- 사무실 복귀 추세가 이뤄지 지고 있다. 많은 기술 대기업들은 최소 일주일에 3일의 사무실 출근을 요구하고 있다.
-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무실 근무가 결점이 있다하더라도 여전히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하버드 박사 과정 학생들의 논문에 따르면 사무실에서 재택근무로 바뀐 온라인 소매업체 직원들의 시간당 처리하는 통화건수가 8% 증가했다는 것.
- 또한 MIT와 UCLA 공동조사에 따르면 재택 근무자의 생산성이 사무실 근무자 보자 18% 떨어졌다는 것. 사무실 경험은 아니지만 체스 전문가조차도 대면 대국보다 온라인 대국에서 실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확인됐다.
- 또한 집에서 협업하기는 힘들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업무 기술 습득도 사무실 근무가 더 빨랐다는 것이다.
- 물론 직원들의 행복도를 생각하면 재택근무를 직원들이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일부 임금 삭감에도 불구하고 재택 근무를 수용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다.
- 앞으로의 업무 형태는 하이브리드가 유지될 것이지만 사무실 근무쪽이 더 많고, 재택 근무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생산성 때문이다.

## TheEconomist 기사

**Bloomberg: Tesla and BYD Post Record Sales on Surge in Electric-Car Demand**

## 테슬라, BYD 기록적인 판매... 전기차 수요 급등 덕분

- 테슬라와 BYD가 2분기에 판매 기록을 세우며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로서 선두 자리를 굳건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 테슬라는 전 세계적으로 466,140대의 자동차를 인도하여 월스트리트 예상치를 상회했다. 중국 최고의 자동차 브랜드인 BYD는 700,244대의 완전 전기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판매하며 사상 최고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Bloomberg 기사

### [보고서]

#### **TheEconomist:** **기업들이 AI를 널리 활용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 2010년대에는 태블릿 컴퓨터와 4G 모바일 인터넷부터 새로운 형태의 AI인 Siri를 포함해 놀라운 기술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혁신 적용 기업만 새로운 기술을 활용했고, 경제 발전에 별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
- 그런데 일부 기업은 AI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수천개의 관련 일자리 공고, 인공지능이 설계한 약물에 대한 중국 인체 실험 시행외에 도미노 피자가 AI를 이용해 주문 배달 시간 정확한 예측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인공지능 적극 도입 S&P500 기업의 주가는 11% 상승한 반면에 다른 기업들은 그렇지 않았다.
- 기업의 AI 도입은 시간이 걸린다. S&P 500기업중 약 70개 기업은 여전히 AI에 관심없다. 작은 기업일수록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로 많은 기업은 이미 사용중인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 새로운 인공지능 기반 기능들을 추가하면서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을 채택하게 된다.
- 실제로 기업들의 AI 이 활용되고 확산되는데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 이유는, 우선 기업들은 수년 또는 수십년 동안 사용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같이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오래되고 복잡한 시스템을 교체하는데 비용 등 간단치 않다. 둘째로는 의료, 교육, 건설 등 정부가 규제하거나 관여하는 많은 산업에서 리더들과 노동조합은 신기술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 인간들의 삶과 업무 방식을 변혁시키겠지만 AI의 광위한 한 확산과 생산성 향상은 같길이 멀다.

Visit our Website

아메리키 신한 은행 일일금융 시장 정보

## "지출은 늘고 저축은 줄고..."미국인들 가난해지고 있다"

비상지출 급증..."연준 비상지출 기준 400달러 정확성 떨어져"

미국인들이 지출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저축이 줄면서 가난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폭스뉴스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P2P(개인 간 금융) 대출회사 렌딩클럽이 결제 데이터 정보서비스회사 페이먼트닷컴과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들 감당해야 할 비상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지난 5월 발표한 '미국 가계 경제적 웰빙 연례 보고서'에서 소비자가 400달러(약 52만5천원)의 비상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조사한 것과 관련해 2013년부터 사용한 기준 400달러가 현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소비자들이 경험한 예상하지 못한 비상 지출의 3분의 2가 기준인 400달러를 초과했으며, 41%는 800달러(약 105만원) 이상을 지출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어 "소비자의 46%가 예기치 않은 비상사태에 직면해 평균 비상 지출로 지난해보다 16% 증가한 1천700달러(약 224만원)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거치면서 물가가 급상승해 그만큼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졌다는 것이다.

렌딩클럽 금융전문가 알리아 두덤은 "이번 조사 결과가 연준의 비상 지출 기준 400달러는 지난 10년간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데다 팬데믹 이후 거시경제 변동성도 감안하지 않아 소비자의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판단하는데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월급 생활 소비자와 긴급 지출에 직면한 소비자 비율은 각각 지난해 7월과 거의 변동이 없지만 이 같은 지출로 인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평균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평균 차량 수리비는 260달러(약 34만원), 건강 관련 지출은 100달러(약 13만원), 예상하지 못한 고액 청구서나 세금은 1천 달러(약 131만원), 주택 관련이나 이사비용은 150달러(약 20만원) 증가했다는 것이다.

두덤은 예상하지 못한 비상 상황에 직면한 소비자 가운데 밀레니얼 세대와 고소득층의 비율이 높았다고 전했다.

그는 "차량과 주택을 소유한 고소득층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봉 10만 달러(약 1억3천만원) 이상인 소비자가 저소득층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34% 높았다"고 덧붙였다.

## [국제 금융 시장 동향]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경기침체 우려 완화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2.4%], 달러화 강보합[+0.0%], 금리 상승[+10bp]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경기 연착륙 기대 증가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유로존 인플레이션 둔화 등으로 1.9% 상승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강보합

유로화 가치는 0.1% 상승, 엔화 가치는 0.4% 하락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긴축기조 장기화 가능성 등으로 상승

독일은 ECB의 추가 금리인상 전망 등으로 4bp 상승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